

옛 틀을 새 틀로 고쳐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

- 복음으로 여는 야고보서 -

시편 35:19-28, 야고보서 3:17-18

정윤돈 목사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전에 나왔 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온전한 주일성수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 응답과 해답을 얻는 그러한 주일과 모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데 가운데, 봉사하는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 표준과 수준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옛 틀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틀로 변화 받아 우리들이 날마다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 성취될 말씀, 그리고 레마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논란의 주제가 되었던 것이 율법인가, 복음인가 혹은 믿음인가, 행위인가 하는 문제였다. 그 내용이 바로 야고보서이다. 야고보서는 복음에 대한 내용이 없다. 예수님의 이름도 두 번 밖에 나오지 않는다. 구원, 영생, 고난, 십자가 사건도 많이 나오지 않는다. 거의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서라고 말하며 성경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은 야고보서를 기록한 당시의 상황을 터득도 깊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또 루터는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복음을 상실했기 때문에 오직 믿음이라는 영혼 구원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야고보의 사명, 이 메시지를 쓴 목적은 이스라엘 열 두 지파, 유대인 중에서 기독교 된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분들의 원래 체질이 율법, 행위이지 않은가. 이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기준도 많은 것이다. 그런데 기독교화,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많은 혼란이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갈등, 문제도 많았다. 하나님의 자녀,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영지주의인 것이다. ‘하나님은 거룩하다. 우리의 욕은 더럽다. 그러니까 욕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것이 영지주의인데, 이러한 이중성을 가지게 된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준 것이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본다. 복음은 확실하고 성경공부는 많이 하는데 삶이 안 되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100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구원의 은혜, 복음이 넘쳤다. 그런데 너무 짧게 율법주의로 해서 복음을 상실했다. 다락방전도운동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WCC처럼 복음에 뿌리내리지 않았는데도 율법주의, 자원주의, 자유주의 신학, 신신학까지 들어와서 혼탁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하는 시간표가 온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직 예수부터 시작해야 한다. 여러분, 오직 예수의 축복, 복음을 받게 된 것을 축하드린다. 그런데 방종으로 흘러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예수로 끝났는데 뭐가 끝났는가. 여러분, 오직 예수 하나만 문제 없어지는가? 돈이 쏟아 지는가? 인격이 훌륭해지는가? 아니다. 다 끝났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구원이 끝났다는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을 믿기를 바란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구원이 완성된 것이다. 그의 대속이 완성된 것이다. 그 사실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예수님은 그 사역을 끝내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옆에만 있으면 뭐하는가. 영접해서 먹어야 나의 것이 되는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구주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기를 바란다. 영접했을 때 그 순간, 영혼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 뜻은 여러분이 지금 죽어도 지옥에 절대 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 그 염려는 불어든 때라. 그렇게 못됐어도 천국에 간다. 단 한 가지 조건인 예수만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문제가 끝난 것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오직 예수가 한국교회에서 희미해져 갔다. 우리는 확실하게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반석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했을 때 원래는 시몬이었는데 베드로, 돌이라는 뜻이다. 베드로는 남침방사인데 깨진 돌, 조각돌을 뜻한다. 게바는 아랍어이고, 베드로는 헬라어인데 ‘나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했을 때 이 반석은 여성명사로 ‘페트라’이다. 여성이 크겠는가, 남성이 크겠는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남성은 큰 바위 같고 여성명사가 작은 것 같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여성명사인 ‘페트라’ 큰 바위, 돌산, 반석을 뜻한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작은 돌인 것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 ‘페트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고백을 한 것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이 반석인 줄을 믿기를 바란다. 우리가 그 위에 아름다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건축해야 하지 않겠는가. 구원만 받고 끝나면 안 되지 않겠는가. 그 이야기를 야고보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야고보서만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구원을 이야기한 로마서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적인 구원을 강조하고 있다. 이 로마서도 초반부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후반부인 12장부터는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심지어 ‘원수가 주리거든 먹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한다. 대단한 전도자의 삶이다. 인격적인 성숙이다. 로마서 16장을 보면 그 시대에 복음, 인격, 교양, 지식, 정성을 다 갖춘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모델로 세운다. 왜 사람의 이름을 꼭 적었겠는가. 그 분들은 이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들이었다. 그러한 응답을 누리는 모든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랩네티가 되기를 축복한다. 확실한 믿음의 복음 위에 전도자의 삶 62가지를 완성해 나가야 한다. 평생 우리가 도전해야 하는 부분이다. 영혼구원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은 평생 동안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개혁하면서 옛 사람을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일에 도전해야 한다. ‘목사님 그래도 안 되는데요.’ 안 되는 분들은 복음을 깊이 묵상하라. ‘예수님 안 됩니다.’ 하루에 천 번이라도 이야기해

라. ‘그리스도여, 나의 길 되신 주님, 길이 막혔습니다. 길을 열어주세요. 내가 나도 용서 못하고 다른 사람도 용서 못 합니다. 예수님은 용서하셨는데,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 이어, 용서할 수 있는 마음과 영혼이 거듭나게 하옵소서. 사단이 지금 나의 삶에, 우리 교회에, 우리나라에 이런 부분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주십시오’ 계속 그리스도를 묵상해 보라. 그러면 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많은 부분을 계속 해서 변화시켜 주실 줄 믿기를 바란다.

1. 버려야 할 옛 틀이 있다. 야고보서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깨트려야 할 옛 틀과 갖춰야 할 새 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진 소중한 말씀이다.

(1) 버려야 할 옛 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다른 말로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율법은 해야 할 것, 하지 말 것 두 가지를 말한다. 야고보서에서는 잘못된 우리의 성품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① 의심하는 불신앙을 버려야 한다고 말한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긍정적인 사고방식,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말하는 것인가. 자녀에게 ‘이거 한 번 해봐라.’ 했을 때 ‘나 이거 못 해.’ 하면 뒤통수를 때리고 싶다. 그런데 반대로 ‘나 한 번 해볼게요. 도와주세요.’ 하면 부모님도 힘나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적극적으로 믿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기를 바란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의 사업, 자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인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왔을 때 이렇게 말했다. ‘너무 막막하고 이 백성을 보니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에서 복음을 가장 전하는 나라가 되었다. 지금 답답하고 어둡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가? 믿음으로 간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바란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지금 있는 많은 문제는 허상이다. 여러분 1000년의 응답을 믿기를 바란다.

② 교만한 성품을 버려야 한다고 말한다. 지나친 겸손도 교만이다. ‘나는 안 돼요. 못 해요.’도 교만이다. 1장 9절에 보면 의미가 어렴풋하지만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그 때 당시 교회를 보면 가난하고 신분이 낮은 사람도 있었다. 가정환경, 학벌도 부족하다. 그렇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자부심,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은 왕자이고 공주이다. 그러니까 사회적, 세상적으로 볼 때 낮은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이것을 자랑할 줄 알아야 한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나는 모든 것을 가졌어.’ 우리 아버지의 것이니까. 어떤 사람이 나아가 가라 폭포 옆에서 ‘우리 아버지의 작품은 훌륭해.’ 하는데 옆에 사람이 ‘이 폭포 주인이세요?’ 한다. 하나님 아버지이다. 여러분이 다 주인인 줄을 믿기를 바란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하면 하나님도 짜증나신다. ‘내가 있잖아. 내가 너의 아버지야. 믿기만 하면 돼.’ 내가 못하면 되는 사람을 붙여주신다. 그 응답을 받아야 한다. 1장 10절에 보면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여러분이 조금 알고 가졌다 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어떻게 부자가 되셨어요?’ 물으면 ‘우연히 그렇게 되었어요.’ 하는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것이다. 우리는 교만한 성품을 버려야 한다. 또한 너무 자신 없는 성품도 버려야 한다.

③ 다음으로는 조금한 성품을 버려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고 성내는 것은 더디하라고 말씀하신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너희가 알지니 듣기는 속히 하고, 경청을 잘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성질이 조금하다. 다 듣기 전에 아는 척하는데, 문제가 생긴다. 잘 모르면 물어봐야 한다. 이 해가 안 되면 의도를 물어봐야 한다.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만 이야기한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하라는 뜻이죠?’ 이렇게 되물어야 한다. 그러면 정확한 의도를 알 수 있다.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말씀하신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 영적인 문제는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할 때 해결된다. 성격이 급한 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어린 양, 끌러가는 양처럼 아무 말도 안하셨을 기억하라. 뺨을 맞고 침 뱉음을 당하셨는데도 어린 양처럼 아무 말도 안하셨다. 호수에 갔더니 양 털을 짚는 것을 봤다. 양 털을 짚는데 양들이 정말로 가만히 있었다. 그래서 양같이 얇전 하다는 말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을 정도였다. 양은 내 발이 들리면 가만히 있는다고 한다. 우리 인간은 두 손, 두 발 다 들어도 퍼덕거린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얇전하게 당하셨다. 우리도 그런 성품, 주님을 닮아야 한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십자가에 달리게 되어도, 왜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으니까, 이 부분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이 부분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 맞게 역사하신다. 믿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믿는 때에는 하나님이 대역사하신다.

④ 원망하지 말라고 하셨다. ‘형제들이 서로 원망하지 말라.’ 어머니, 아버지, 나라, 국가, 대통령을 원망하는데 그것은 망한 인생이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이 말을 했다. “엄마 아버지 원망하지 말라. 가장 중요한 것은 너의 생명이다. 그 생명을 주신 분이 부모님이다. 그렇다면 부모님은 그 역할을 다 완성한 것이다.” 그 다음은 내가 소화해야 할 부분이지 원망해야 할 부분이 아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라도 부모님, 교회, 선생님들 원망할 필요가 없다. 우리의 기준을 성경의 기준으로 바꾸기를 바란다.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문제가 있는 이유는, 우리의 기준이 아직 내 생각이기 때문이다. 내 생각대로 하면 결국 울무, 호수, 틀에 빠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는 이유가 나의 생각의 기준을 바꾸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요셉은 노예로 끌려갔다. 노예가 무슨 불만, 불평, 원망할 수 있는가. 그것을 할 수 없는 신분으로 바꾸었다. 노예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나를 주장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 밑에서 다니엘, 느헤미야는 조용히 자신의 역할을 하면서 악한 독재자를 도와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했다. 이렇게 여러분의 틀을 바꾸기를 바란다.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 우리는 달라야 한다. 성경적으로 해야 한다. 요세 데모하니까 데모하는 대로, 운동하니까 운동하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은 세사적인 방법이다. 속으면 안 된다. 우리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하나님 주의이다. 하나님주의는 모든 백성이 완전히 섬기는 자이면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예수님이 그러했다. 다 섬기면서 왕이셨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섬기면서 왕 같은 축복을 누리면 된다.

(2) 교회에서 성도들을 차별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야고보서 2

장 2절-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온다. '만일 너희 회당에' 유대인의 회당을 말하는 데 지금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다.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 여겨 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정말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차별을 받더라도 절대 상처받을 필요 없다. 내가 차별을 받는다면 누군가가 유익을 받고 있는 것이다. 감사한 일이다. 여러분이 편하고 좋다면 누군가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항상 그러한 혜택 속에서 살아간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나도 그 혜택 속에서 살 수 있다. 완벽하게 공평할 수 없다. 혹시라도 그런 느낌이 있으면 양보하고 그 다음 순서를 기다리면 된다. 그것을 참지 못하고 '이렇게 불공평하냐?' 라고 하면 지옥된다. 여러분이 더 배려해 주고 성숙된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한다. 직장 안에서 그리스도인인데 '왜 차별하세요?' 하면 무엇이냐 하겠는가. '괜찮습니다.' 하고 양보 할 때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한다. 이래야 하는 것이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그리스도인은 방법이 달라야 한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다. 현장을 치유하는 빛이 되기를 바란다. 그것은 부부사이에도 마찬가지이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안 해주지?' 이렇게 서로 섭섭하다고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것이다. 요새는 맞벌이, 각자 생활과 주부생활이 얼마나 힘든가. 그러니까 조금 배려하면 된다. '왜 나는 네 많이 하나.' 이 기적이면 지옥이 되는 것이다. 내가 손해 본 것을 손해 본다고 생각하지 말고 십자가 정신으로 회개하고 배려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부부관계가 지옥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기를 축원한다. 성경말씀으로 여러분의 기준을 바꿔야 한다.

(3) 혀를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조심하라고 말한다. 3장 4절에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혀에 대한 이야기를 3장 전체가 말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한다. 옳은 말, 섭섭한 말, 맞는 말, 배려 없는 말, 내 의지를 말하는 말 등으로 상대방을 찌른다. 심지어 어떤 분은 부부싸움하면서 어떻게 하면 남편 마음을 더 상하게 할까 연구를 한다고 한다. 잘못하면 우리도 이러한 상태가 된다. 이런 마음의 상태가 입술로 나오는 것이다. 그 마음은 영적인 상태가 평안하고, 그리스도로 결론나면 마음이 달라진다. 그러면 좋은 말, 은혜로운 말이 나온다. 사실은 영적인 문제이다. 여러분의 영혼을 완전히 복음으로 뒤바꾸시길 축원드린다. 그 적용을 잘해야 한다. 그리스도 따로, 내 마음 따로, 혀 따로 한다.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의 형제라고 말하는데, 마리아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안다. 이 야고보 사도가 오직을 잡다 밀리 본 것이다. 이 복음이 빛이 되고 삶까지 바뀌어야만 형님인 예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3장 5-6절에 보면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10절에 보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 혀를 조심해야겠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라. 여러분은 전신갑주를 입어서 어떤 누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에 상처를 입지 않을 정도의 믿음을 가지기를 바란다. 의의 흥배를 가져라.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전신갑주로 탁 튕겨 나가야지. 콧 박아서 아파야겠는가. 그렇다면 믿음의 방패, 의의 흥배를 입지 않은 것이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통 튀어나가야 한다.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셨다. 아버님이 성질이 옥해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웃으신다. '엄마는 속이 없어요?' 하니 어머니가 '내 마음이 스펀지 같거든? 그래서 내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튕긴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스펀지가 되든지, 의의 흥배가 되어서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소화해내고 튀어나갈 수 있을 정도가 되길 축원드린다. '교회에서 이런 말을 했어, 누가 이런 말을 했어.'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을 가지고 상처 입는 수준이 아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시대, 뽕 맛고 모욕을 당하셨지만 다 이기셨다. 그 준비임을 목상하기를 축원한다. 예수님도 그러했다. 문제 될 것이 없다. 너희가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한다. 굳이 변명할 필요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의 명예를 땅 바닥에 떨어뜨리지 말라. 그리스도인들은 시대를 바꾼 대단한 존재이다. 다른 수준에 있다.

(4)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는 옛 체질을 버릴 것을 권하고 있다. 오늘 읽은 시편 구절과 같이 그들과 싸우지 않고 자신을 억울하게 만들고, 괴롭히고, 고발한 사람들을 두고 기도했다. 더 무섭다. 시편 35편 4절에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몰려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여러분은 주역이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길 축원한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겠다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우리는 주께 맡기고 용서하고 기다리면 된다. 상처받을 필요 없다. 오히려 기도해줘야 한다. 엄청난 화가 임할 것이니까. 여러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하나님 자녀이다. 여러분을 건들인 사람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신다. 그 조건은 여러분이 기도하고 주께 맡겨야 한다. 내가 미워하면 안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17절에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는 사람을 죽이고, 어렵게 만든다. 악한 데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 17-18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천체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공훈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주신 위로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만 가득하게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린다.

2. 갖춰야 할 새 틀을 말하고 있다.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다.

(1)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에 인내와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말할 것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오랫동안 이 말씀

을 나의 표준으로 삼았다. 온전히 기쁘게 하라고 했다. 아무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의 기준, 나의 생각, 판단으로는 다 문제가 된다. 그런데 말씀을 기준, 표준으로 바꾸니까 문제가 되지 않고 응답이 온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이 있다. 구원 받았지만 많은 어려움과 상처, 아픔이 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인내, 하나님을 생각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내가 필요하다. 어느 순간 여러분에게 그 고통과 어려움이 응답으로 축복으로 행복으로 깨달음으로 다가오는 시간표가 올 줄을 믿어야 한다. '그에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구나.' 문제였는데 은혜로 깨달음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축복으로 오는 것이다. 5장 10절에 '형제들이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행함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말하자면 그들을 너희의 오래 참음과 본으로 삼으라고 말씀 하셨다. 옳의 인내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신다.

(2)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새 틀은 사실적으로 실천하는 믿음의 행위를 가져야겠다. 야고보서 2장 14-17절에 보면 사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 15절부터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덮개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구원의 믿음은 믿음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행함이 필요한 것이 있다. 이웃을 돕는 행동으로 보여야 하는 것이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 행위로 보여야 할 부분이다. 또 말하기를, 1장 27절에 보면 진정으로 경건한 신앙생활이란 고이나 과부처럼 사회에서 약한 사람들을 그 어려움에서 도와주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이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우리는 후자만 경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적인 실천을 해야겠다. 우리 집안은 사회복지를 100년 가까이 했다. 봉사하고 후원하는 부분들은 거의 크리스찬들이 했다. 우리가 각자 흠어져서 하는 총 앙을 보면 가장 많이 한다. 기도 가장 좋다. 믿음 있는 사람이 가장 잘한다.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지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우리가 도전해야 할 부분이다.

(3) 엘리야와 같은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라고 권하고 있다. 결국 우리가 도달해야 할 부분이다. 5장 17-18절에 보면 '엘리아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삼 년 육 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하나님은 결국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이 이러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한다.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적, 삶 적으로도 거룩해지면 이 능력이 나타난다. 우리 교회에 그러한 기도의 사람, 영적으로나 삶에 있어서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축복을 우리 교회에 여러분에게 쏟아주실 것을 믿기를 바란다. 나는 잘 못하겠으니까 여러분이 램프들이 해라.(웃음) 램프들이 기도문, 기도수첩을 올리는데 너무 모델적으로 잘한다. 이미 축복을 받았으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하면 옛 틀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인다운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그 방법으로는 세 가지로 구원과 치유를 받아야겠다.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삶 적인 것이다.

1.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영적인 구원을 받을 때 우리의 영혼은 지금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세상의 그 어떤 과학, 철학도 불가능한 다른 영적 시스템이다. 아무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다. 과학으로도, 철학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어떤 종교도 우리의 원죄문제, 자범죄, 지옥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 너무나도 소중한 복음이다. 오직 예수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을 때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고 나머지 부분들이 치유되는 것이다.
2. 그렇다면 '구원받았으면 끝인데 왜 예배드립니까?' 어떻게 하면 인격적으로 훌륭해질 수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예배,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기준을 위의 것으로 바꿔야 한다. 항상 기준이 다 중심, 내 경험 중심, 내가 읽은 책 중심으로 하면 여러분은 못한다. 발전은 없고 문제만 더 커진다. 그래서 예배, 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기준을 바꾸는 것이다. 그냥 와서 내 생각, 기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되면 절대 성장하지 못한다. 오늘 내가 바뀌어 할 틀은 무엇인가. 오늘 내가 갠 이념, 사상은 무엇인가. 이것은 세상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닮으려야 한다. 그래야지 참된 응답이 온다. 이것이 단독시스템이다. 혼자서도 목상을 깊이 하다가 이것을 깨달아서 스스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수첩하면서 '내가 이것을 바꿔야지.' 해야 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날마다 그런 응답과 성정이 있기를 바란다.
3. 이제 627까지 전도자의 삶 안에서 제 1,2,3 RUTC. 또 237개 모든 나라 모든 족속 세우는 일에 도전하는 것이다. 이것이 제 3의 시스템이다. 오늘 카렌틴이 선교캠프를 떠나는데 선교현장을 가면 '아 이게 선교구나.' 돕고 선교를 하다보면 내 체질이 바뀐다. 전도캠프 현장에 가보면, 다락방현장, 지교회현장을 가봐라. 거기 안에서 미래의 제 1,2,3 RUTC 말씀운동을 할 문화센터의 현장을 두고 기도해보라. 그러면 나의 모든 체질, 영혼까지 바뀐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거듭나는 것이다. 이 모든 사역의 주역이 되기를 축원드린다. 야고보서 강단메시지를 다쳐 목상하시면서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에 도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한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너무나 연합한데 구원의 복음을 확실하게, 완전한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이제 다시 전도자의 삶을 향하여 도전할 수 있는 메시지를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을 계기로 절대 변하지 않는 우리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뀔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목상하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성도들이 되어서 그 현장에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쓰임 받으며 정말로 7지옥과 같은 현장을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 받으며 세상적인 교육으로 망쳐져 있는 이 교육현장을 살리며 모든 흑암정체를 복음의 경제로 바꾸는 주역으로 쓰임 받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